

청소년의 여가환경이용과 희망 여가공간의 위치구조

Using & Structure of Leisure Spaces Perceived by Adolescents

오 은 미 · 박 경 옥
충북상고 ·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Oh, Eun Mi · Park, Kyoung Ok
Chungbuk Commercial High School ·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leisure space planning desirable for adolescents through survey on their using leisure space.

Four hundred sixty-six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Chongju city, Gwesang-gun and Eumsung-gun responded the first basic questionnaire and 160 students among them answered again the second questionnair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site of leisure space they want.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and Multi-Dimensional Scale were methods of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dolescents are wasting their leisure time because of insufficient facilities for productive activities. They use the time, when observed in one week, roaming around downtown, studying in off-school academies, visiting shops and playing in the game rooms. And when observed in a month, they use time meeting friends in coffee shops, visiting restaurants, studying in the libraries, playing in the ground and visiting sports facilities. Adolescents' leisure tim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ex, age, father's educational level, mother's occupation, household income, and living area. Students hoped the leisure spaces to be located in the neighborhood where they can access easily, and facilities they wanted were small shop-buildings, game rooms, off-school academies, schools, sports facilities, studying rooms and libraries. It is necessary that adolescents have opportunities to learn how to use their leisure time healthy in the leisure space. And consideration on adolescents living in the remote rural area have to be dealt importantly in the beginning of various planning.

Key words : leisure time, leisure space, site of leisure space

Corresponding author: Kyoung Ok Park
Tel. 043)261-2743, Fax. 043)276-7166
E-mail : kyopark@cbucc.chungbuk.ac.kr

I. 서론

1. 연구목적

청소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 있는 시간 이외에는 주변 여가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갖게 된다. 여가시간은 인생의 각 주기마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여가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의 불안·긴장을 해소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꼭 필요한 활동이다.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이 되게 하여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한다.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환경의 이용은 청소년들의 성, 연령 등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주변의 여가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주택내에 개인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따른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권현숙, 1984; 윤홍섭, 1995). 대도시권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친구만남, TV보기, 음악감상이 주로 이루어지고 학교보다는 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향이 있다(이연숙·윤경선·윤영선·윤혜경, 1995). 이런 여가행동은 학습에 대한 부담이 큰 청소년기에 조직적인 행위 없이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동거리도 최소화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중소도시이하의 지역에서는 주변 여가시설이 차이가 있어서 대도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청소년의 특성과 지역에 따른 여가활동과 여가공간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빠른 변화를 보이는 현사회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관심과 더불어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여가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여가환경 이용실태와 미래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여가환경의 위치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에 적합한 여가환경의 계획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거지역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빈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연령과 주거지역에 따라 여가공간의 이용거리는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주거지역에 따라 청소년이 원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위치구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주된 이용공간은 주거, 학교, 여가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기의 공간적인 경계나 행동반경은 아동기에 비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은 점점 더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경향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1차적인 주거공간 못지 않게 여가공간이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Ittelson, 1995).

여가의 개념은 학자들이 여가를 보는 입장에 따라 각기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하다. 머피(Murphy, 1975)는 자기 결정적 상황에서 재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여가로 보고 있어, 여가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하루 24시간 중 학업이나 생업, 수면, 식사, 생리적 활동 등과 같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뜻한다.

여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사회생활에서 받는 욕구불만·좌절·갈등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김명조, 1990).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들(한국청

소년연구원, 1992; 한준상, 1988, 윤영선, 1997 재인용)은 청소년의 휴식공간, 놀이공간, 놀이활동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가를 잘 이용하며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생활에 만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향 (Ragheb & Mckinney, 1993; Caldwell, Smith, & Weissinger, 1992, 윤영선, 1997 재인용)이 있으므로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중요하다.

실제로 청소년은 여가활동을 남녀 모두 필요로 하며(88.7%) 여가활동이 생활의 즐거움(39.5%)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39.4%)가 된다고 느낀다(이숙희, 1990). 중고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약 2시간이며, 토요일은 4시간 이내, 휴일은 4시간 이상이고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라디오 청취·독서 등인데 비해 원하는 것은 음악·영화·연극감상·스포츠활동으로 차이를 보인다(홍세정, 1992). 이연숙 등(199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이 약 3시간, 토요일의 여가시간이 약 6시간으로 이전연구보다 증가된 경향을 보인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학생과 중학생이 여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홍세정, 1992), 불만족 이유는 시간제약과 여가시설 및 장소문제를 지적하고 있다(홍세정, 1992; 여충규, 1992). 윤영선(199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38.3%)가 만족하는 경우(23.9%)보다 더 많고, 불만족하는 이유는 시간부족(46.7%),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18.7%), 경제적 이유(16.4%), 부모님의 반대(9.5%), 여가장소가 먼 것(6.6%) 등이었다.

청소년의 여가공간은 생활권 영역에 따라 첫째, 가정, 둘째, 주택가 주변이나 인근의 학교·놀이터 등의 이웃공간, 셋째, 청소년회관이나 도서관·박물관·각종 문화시설 등이 있는 시·읍·면의 공공시설, 넷째, 종교단체나 기관, 다섯째, 산책로·자전거 전용도로·잔디밭·가족놀이 장소·수련장소 등의 자연공간, 여섯째, 각종 구기종목시설·실내의 수영장·스키장 등의 사회체육시설, 일곱째, 청소년들이 관객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극·영화관·또는 음악회·합창단 등이나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통

한 취미활동 즉, 사진·무용·공작·독서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청소년센터 및 시설, 여덟째, 국가간·국제간의 시설 및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한다. 이상에서 보면, 여가생활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동네·이웃중심·지역사회 단체 및 문화시설 등 미시적 생활공간에서 거시적 생활공간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되는 각각의 여가공간은 그 공간의 애착성과 접근성 및 공간성에 따라 이용율이 달라지게 되며, 특히 접근성은 여가공급의 물리적인 요인으로 여가자원의 공급효율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이때의 접근성은 참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지각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재정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시간, 비용, 시설이란 요소로 합축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이나 비용보다는 시설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앞으로 여가시간의 증가와 소득증가가 계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시설적인 측면 즉, 물리적인 접근성이 더욱 중요시 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윤영선(199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곳은 스포츠시설이며 종교시설과 쇼핑장소는 차량권으로 멀리 있기를 희망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생활공간에 대한 환경적 경험이 한정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당일 여가를 위한 이용자 지향형의 자원개발이 필요하며 물리적인 접근성, 즉 근접성이 요구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시간의 희소성과 이동으로 인한 시간소모의 최소화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강조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와 괴산군 괴산읍, 음성군 무극읍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으

로 하였다. 표집설계는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입시부담이 적고 학교 생활에 충분히 적응한 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질문지를 완성하면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본조사기간은 1999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중고, 남녀, 지역을 고려하여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모두 회수하였다. 이 중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이용된 자료는 466부였다. 미래 희망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위치구조를 알아보는 다차원척도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본조사 대상자 중 160명을 선정하여 추가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도구

여가환경 이용은 집과 여가공간과의 거리, 여가공간 이용빈도를 포함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영선(1997)의 청소년 여가행태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여가공간의 거리와 이용빈도 조사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항목으로는 학원·길거리·상점·오락실·유흥장·공원·놀이터 및 스포츠시설·음식점·커피숍·종교시설·독서실·도서관·영화관 등의 11개 여가공간에 대해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정도를 도보 근거리 1점에서 차량 원거리 4점으로 하여 측정하였고, 사용빈도는 「전혀 이용 안함」 1점에서 「매일이용」 6점으로 하였다.

또한 미래 희망하는 제반 여가공간들 간의 위치구조는 집과 11개의 여가공간 상호간에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거리를 「걸어서 10분 이내」 1점부터 「차타고 1시간 이상」 5점까지로 하여 5단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은 SAS WIN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값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거지역에 따른 여가환경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χ^2 -test를 하였다. 여가행태를 지원하는 제반 공간들 간의 원하는 위치구조는

SPSS WIN 8.0을 이용한 다차원척도 분석(MDS : Multiple Dimensional Scale)을 하여 유클리안 거리 모델(Euclidean distance model)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변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청소년은 남자가 43.9%, 여자가 56.1%이고, 연령은 중학생이 49.9%, 고등학생이 50.1%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족수는 4명 이하가 60.3%로 가장 많았으며, 5~6명은 34.1%, 7명 이상은 5.6%였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250만원 이상 23.6%, 150~200만원 미만 23%, 50~100만원 미만 21.7%, 100~150만원 미만 20.2%로 모두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200~250만원 미만은 11.6%로 가장 적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대졸 이상이 24.8%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0.7%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그 다음으로 26.9%의 분포를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18.9%)과 농업(18.4%)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는 전업주부(71.2%)가 높게 나타났다.

2) 주거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은 <표 2>와 같다.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시지역이 47.5%, 읍지역이 36.7%, 면지역이 15.8%로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를 보면 아파트단지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독주택가가 33.3%, 농촌지역이 8.2%, 상가지역이 4.8%로 나타났다.

2. 여가환경 이용

청소년의 여가환경에 대해서는 여가공간의 이용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특성

(N = 466)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성	남자	204	43.9	연령	중학생	232	49.9
	여자	261	56.1		고등학생	233	50.1
	계	465	100.0		계	465	100.0
가족 수	1~4명	281	60.3	월평균 가계 수입!	50~100만원 미만	101	21.7
	5~6명	159	34.1		100~150만원 미만	94	20.2
	7명 이상	26	5.6		150~200만원 미만	107	23.0
					200~250만원 미만	54	11.6
	계	466	100.0		250만원 이상	110	23.6
아버지 학력	국졸 미만	39	8.6	어머니 학력	국졸미만	46	10.2
	중졸	75	16.6		중졸	121	26.9
	고졸	225	49.9		고졸	228	50.7
	대졸 이상	112	24.8		대졸이상	55	12.2
	계	451	100.0		계	450	100.0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직 및 관련직	32	7.2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332	71.2
	행정관리직	37	8.3				
	사무직	84	18.9		계	466	100.0
	판매직	54	12.1				
	서비스직	34	7.6				
	생산직	25	5.6				
	농업, 어업 등	82	18.4				
	기타	97	21.8				
계	445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N = 466)

변인	구분	빈도	%
주거지역	시지역	220	47.5
	읍지역	170	36.7
	면지역	73	15.8
	계	463	100.0
거주지	단독주택가	152	33.3
	아파트 단지	199	43.6
	상가지역	22	4.8
	농촌지역	83	18.2
	계	456	100.0

빈도, 이용 여가공간과 집과의 거리를 알아보았다.

1) 여가공간 이용빈도

청소년들의 여가공간에 대한 이용빈도를 알아 보면 <표 3>과 같다. 학원은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경우」(56.0%)가 가장 많았으나 「매일 이용하는 경우」도 29.5%였다. 길거리(길거리 돌아다니기)(49.9%)는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점류(상가, 백화점, 슈퍼)는 일주일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52.4%였으며 오락실(노래방, 컴퓨터 게임방)은 일주일에 1~3번(29.6%)과 한 달에 1~3번(29.0%)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들의 일일생활 중 길거리(길거리 돌아다니기)에 있는 것과 학원이용이 많으며, 일주일에 1~3번에는 상점류 이용, 길거리 돌아다니기, 오락실 이용이 많아서 청소년들은 건전한 여가공간을 이용하기

〈표 3〉 여가공간 이용빈도

장소	매일 이용 (%)	일주일에 1~3번 (%)	한달에 1~3번 사이 (%)	한계절에 1~2번 사이 (%)	1년에 1~3번 사이 (%)	전혀 이용 안함 (%)	계 (%)
학원	130(29.5)	36(8.2)	5(1.1)	7(1.6)	16(3.6)	247(56.0)	441(100.0)
길거리(길거리 돌아다니기)	227(49.9)	136(29.9)	67(14.7)	6(1.3)	9(2.0)	10(2.2)	455(100.0)
상점류(상가, 백화점, 슈퍼)	120(26.5)	237(52.4)	71(15.7)	8(1.8)	7(1.5)	9(2.0)	452(100.0)
오락실(노래방, 컴퓨터게임방)	41(8.9)	136(29.6)	133(29.0)	48(10.5)	44(9.6)	57(12.4)	459(100.0)
유홍장(술집)	6(1.3)	4(0.9)	14(3.1)	15(3.3)	19(4.2)	393(87.1)	451(100.0)
공원/녹지공간	19(4.2)	42(9.4)	90(20.0)	63(14.0)	80(17.8)	155(34.5)	449(100.0)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	37(8.0)	99(21.5)	128(27.8)	47(10.2)	47(10.2)	102(22.2)	460(100.0)
커피숍/음식점	5(1.1)	74(16.2)	217(47.4)	67(14.6)	37(8.1)	58(12.7)	458(100.0)
종교시설(교회/성당 등)	4(0.9)	90(19.8)	52(11.4)	32(7.0)	37(8.1)	241(52.7)	455(100.0)
독서실/도서관	17(3.7)	69(15.1)	171(37.3)	89(19.4)	50(10.9)	62(13.5)	458(100.0)
감상활동시설(영화관)	4(0.9)	11(2.4)	63(13.9)	99(21.8)	118(26.0)	159(35.0)	454(100.0)

보다는 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상점들과 오락실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홍장(술집)(87.1%)과 공원/녹지공간(34.5%)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놀이

터/운동장/스포츠시설(27.8%)과 커피숍/음식점(47.4%)은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종교시설(교회/성당 등)(52.7%)과 감상활동시설(영화관)(35.0%)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표 4〉 성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빈도

여가공간	성	매일 이용 (%)	일주일에 1~3번 (%)	한달에 1~3번 사이 (%)	한계절에 1~2번 사이 (%)	1년에 1~3번 사이 (%)	전혀 이용 안함 (%)	계	χ^2
오락실	남자	32(15.8)	88(43.4)	52(25.6)	9(4.4)	6(3.0)	16(7.9)	203(100.0)	78.71***
	여자	9(3.5)	48(18.8)	80(31.4)	39(15.3)	38(14.9)	41(16.1)	255(100.0)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	남자	22(10.8)	58(28.6)	59(29.1)	16(7.9)	15(7.4)	33(16.3)	203(100.0)	22.71***
	여자	15(5.9)	41(16.0)	68(26.6)	31(12.1)	21(12.5)	69(27.0)	256(100.0)	
독서실/도서관	남자	11(5.5)	25(12.6)	69(34.7)	35(17.6)	23(11.6)	36(18.1)	199(100.0)	11.29*
	여자	6(2.3)	44(17.1)	101(39.2)	54(20.9)	27(10.5)	26(10.1)	258(100.0)	
감상활동시설	남자	4(2.0)	6(3.0)	27(13.3)	50(24.6)	34(16.8)	82(40.4)	230(100.0)	24.15***
	여자	0(0.0)	5(2.0)	36(14.4)	49(19.6)	84(33.6)	76(30.4)	250(100.0)	

* p<.05 *** p<.001

<표 5> 연령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빈도

여가 공간	연령	매일 이용 (%)	일주일에 1~3번 (%)	한 달에 1~3번 사이 (%)	한계절에 1~2번 사이 (%)	1년에 1~3번 사이 (%)	전혀 이용 안함(%)	계	χ^2
오락실	중학생	22(9.6)	70(30.6)	52(22.7)	18(7.9)	27(11.8)	40(17.5)	229(100.0)	21.28***
	고등학생	19(8.3)	65(28.4)	81(35.4)	30(13.1)	17(7.4)	17(7.4)	229(100.0)	
공원/ 녹지공간	중학생	13(5.9)	27(12.2)	54(24.4)	26(11.8)	30(13.6)	71(32.1)	221(100.0)	17.39***
	고등학생	6(2.6)	15(6.6)	36(15.9)	37(16.3)	50(22.0)	83(36.6)	227(100.0)	
독서실/ 도서관	중학생	7(3.0)	42(18.3)	94(40.9)	32(13.9)	26(11.3)	29(12.6)	230(100.0)	12.93*
	고등학생	10(4.4)	27(11.9)	77(33.9)	57(25.1)	23(10.1)	33(14.5)	227(100.0)	
감상활동 시설	중학생	2(0.9)	5(2.2)	30(13.4)	41(18.3)	47(21.0)	99(44.2)	224(100.0)	18.11**
	고등학생	2(0.9)	6(2.6)	33(14.4)	58(25.3)	71(31.0)	59(25.8)	229(100.0)	

* p<.05 ** p<.01 *** p<.001

<표 6> 아버지 학력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빈도

여가 공간	아버지 학력	매일 이용 (%)	일주일에 1~3번 (%)	한 달에 1~3번 사이 (%)	한계절에 1~2번 사이 (%)	1년에 1~3번 사이 (%)	전혀 이용 안함 (%)	계	χ^2
커피숍/ 음식점	국졸 미만	0(0.0)	5(13.2)	12(31.6)	5(13.2)	8(21.1)	8(21.1)	38(100.0)	27.46*
	중졸	1(1.4)	10(13.7)	37(50.7)	8(11.0)	8(11.0)	9(12.3)	73(100.0)	
	고졸	4(1.8)	37(16.7)	97(43.7)	37(16.7)	15(6.8)	32(14.4)	222(100.0)	
	대졸 이상	0(0.0)	17(15.5)	67(60.9)	13(11.8)	5(4.6)	8(7.3)	110(100.0)	

* p<.05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독서실/도서관(37.3%)은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공간의 이용빈도를 χ^2 검증 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표 4>~<표 10>과 같다.

성에 따라 청소년의 여가공간 이용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오락실(p<.001),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p<.001), 독서실/도서관(p<.05), 감상활동시설(p<.001) 등이었다(표 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오락실 이용은 일주일에 1~3번과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놀이터/운동장/스포츠 시설의 이용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독서실/도서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감상활동시설은 여학생은

1년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학생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여학생은 독서실, 감상활동 시설과 같은 정적이며 비소비적인 여가공간을 이용하는데 비해, 남학생은 오락실이나 놀이, 운동시설과 같은 동적이며 소비적인 여가공간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오락실(p<.001), 공원/녹지공간(p<.001), 독서실/도서관(p<.05), 감상활동시설(p<.01) 등으로 <표 5>와 같다. 오락실은 중학생이 일주일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등학생은 한 달에 1~3번 정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공원/녹지공간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한달에 1~3 번에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독서실/도서관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한달에 1~3 번 이용하는 경우가 더 높았고, 감상활동 시설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적으므로 공원/녹지공간, 독서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여가시간에 오락실, 감상활동시설 등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빈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은 커피숍/음식점(p<.05)이며 <표 6>과 같다. 커피숍/음식점은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커피숍/음식점의 이용은 소비성의 활동임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수입이 높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 직업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도서관/독서실(p<.05)로 취업주부인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전업주부 어머니

<표 7> 어머니 직업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빈도

여가공간	어머니 직업	매일 이용 (%)	일주일에 1~3번 (%)	한달에 1~3번 사이 (%)	한계절에 1~2번 사이 (%)	1년에 1~3번 사이 (%)	전혀 이용 안함 (%)	계	χ^2
독서실/도서관	취업주부	45(13.9)	33(18.1)	63(19.3)	125(38.3)	54(16.6)	6(1.8)	326(100.0)	13.39*
	전업주부	17(12.9)	17(12.9)	26(19.7)	46(34.9)	15(11.4)	11(8.3)	132(100.0)	

* p<.05

<표 8> 월평균 가계수입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빈도

여가공간	월평균 가계수입	매일 이용 (%)	일주일에 1~3번 (%)	한달에 1~3번 사이 (%)	한계절에 1~2번 사이 (%)	1년에 1~3번 사이 (%)	전혀 이용 안함 (%)	계	χ^2
놀이터/운동장/스포츠 시설	50~100만원 미만	14(14.1)	16(16.2)	21(21.2)	9(9.1)	8(8.1)	31(31.3)	99(100.0)	38.92**
	100~150만원 미만	4(4.3)	22(23.7)	26(28.0)	10(10.8)	7(7.5)	24(25.8)	93(100.0)	
	150~200만원 미만	4(3.7)	27(25.2)	39(36.5)	8(7.5)	13(12.2)	16(15.0)	107(100.0)	
	200~250만원 미만	3(5.7)	12(22.6)	22(41.5)	6(11.3)	5(9.4)	5(9.4)	53(100.0)	
	250만원 이상	12(11.1)	22(20.4)	20(18.5)	14(13.0)	14(13.0)	26(24.1)	108(100.0)	
독서실/도서관	50~100만원 미만	2(2.0)	15(15.3)	47(48.0)	18(18.4)	11(11.2)	5(5.1)	98(100.0)	34.13*
	100~150만원 미만	2(2.2)	16(17.2)	37(40.0)	17(18.3)	13(14.0)	8(8.6)	93(100.0)	
	150~200만원 미만	8(7.5)	18(16.8)	31(29.0)	25(23.4)	9(8.4)	16(15.0)	107(100.0)	
	200~250만원 미만	1(1.9)	8(14.8)	24(44.4)	9(16.7)	2(3.7)	10(18.5)	54(100.0)	
	250만원 이상	4(3.8)	12(11.3)	32(30.2)	20(18.9)	15(14.2)	23(21.7)	106(100.0)	

* p<.05 ** p<.01

니가 있는 경우보다 이용빈도가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의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도서관/독서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

월평균 가계수입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빈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놀이터/운동장/스포츠 시설(p<.01), 독서실/도서관(p<.05) 등이며 <표 8>과 같다.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은 월평균 가계수입이 200~250만원일 경우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0~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전혀 이용 안 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독서실/도서관은 월평균 가계수입이 50~100만원 미만일 경우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독서실/도서관은 학습시설로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지역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공원/녹지공간(p<.001),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p<.05), 커피숍/음식점(p<.05), 독서실/도서관(p<.001) 등으로 <표 9>와 같다. 공원/녹지공간은 시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읍이나 면지역에 사는 청소년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놀이터/운동장/스포츠 시설은 시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읍지역에 사는 청소년보다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면지역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커피숍/음식점은 시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독서실/도서관은 면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한 달에 1~3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여가공간 이용빈도가 높은 것은 시지역에는 다양한 여가공간 시설과 소비성 시설이 많기 때문이며, 면지역은 단순한 학습시설 정도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용하는 여가공간까지의 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여가공간까지의 거리는 <표 10>과 같다. 청소년들은 커피숍/음식점과 감상활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여가공간에서 도보 근 거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특히 상점류 등 (69.7%), 놀이터/운동장/스포츠 시설(65.9%), 길거

<표 9> 주거지역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빈도

여가 공간	주거 지역	매일 이용 (%)	일주일에 1~3번 (%)	한달에 1~3번 사이 (%)	한계절에 1~2번 사이 (%)	1년에 1~3번 사이 (%)	전혀이용 안함 (%)	계	χ^2
공원/ 녹지 공간	시	9(4.2)	27(12.6)	55(25.7)	35(16.4)	46(21.5)	42(19.6)	214(100.0)	43.47***
	읍	8(4.9)	10(6.1)	27(16.6)	21(12.9)	21(12.9)	76(46.6)	163(100.0)	
	면	2(2.9)	5(7.3)	8(11.6)	7(10.1)	12(17.4)	35(50.7)	69(100.0)	
놀이터/ 운동장/ 스포츠 시설	시	16(7.4)	47(10.3)	65(30.0)	27(12.4)	29(13.4)	33(15.2)	217(100.0)	20.25*
	읍	15(8.9)	39(23.2)	47(28.0)	11(6.6)	11(6.6)	45(26.8)	168(100.0)	
	면	6(8.3)	13(18.1)	15(20.9)	9(12.5)	6(8.3)	23(31.9)	72(100.0)	
커피숍/ 음식점	시	2(0.9)	34(15.7)	111(51.2)	40(18.4)	12(5.5)	18(8.3)	217(100.0)	19.30*
	읍	3(1.8)	29(17.4)	74(44.3)	20(12.0)	18(10.8)	23(13.8)	167(100.0)	
	면	0(0.0)	11(15.5)	31(43.7)	7(9.9)	6(8.5)	16(22.5)	71(100.0)	
독서실/ 도서관	시	5(2.3)	16(7.3)	67(30.7)	58(26.6)	33(15.1)	39(17.9)	218(100.0)	53.06***
	읍	7(4.2)	40(24.0)	73(43.7)	23(13.8)	10(6.0)	14(8.4)	167(100.0)	
	면	5(7.1)	13(18.6)	31(44.3)	7(10.0)	5(7.1)	9(12.9)	70(100.0)	

* p<.05 *** p<.001

〈표 10〉 이용하는 여가공간까지의 거리

빈도(%)

장소	도보 근거리	도보 원거리	차량 근거리	차량 원거리	계
학원	148(55.6)	29(10.9)	60(22.6)	29(10.9)	266(100.0)
길거리(길거리 돌아다니기)	250(56.9)	126(28.7)	48(10.9)	15(3.4)	439(100.0)
상점류(상가, 백화점, 슈퍼)	303(69.7)	47(10.8)	63(14.5)	22(5.1)	435(100.0)
오락실(노래방, 컴퓨터 게임방)	229(55.2)	89(21.4)	75(18.1)	22(5.3)	415(100.0)
유흥장(술집)	80(38.6)	40(19.3)	49(23.7)	38(18.4)	207(100.0)
공원/녹지공간	134(39.8)	62(18.4)	75(22.3)	66(19.6)	337(100.0)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	251(65.9)	62(16.3)	46(12.1)	22(5.8)	381(100.0)
커피숍/음식점	133(33.3)	86(21.5)	139(34.8)	42(10.5)	400(100.0)
종교시설(교회/성당 등)	130(42.9)	64(21.1)	64(21.1)	45(14.9)	303(100.0)
독서실/도서관	162(40.5)	80(20.0)	98(24.5)	60(15.0)	400(100.0)
감상활동시설(영화관)	39(11.1)	41(11.6)	126(35.8)	146(41.5)	352(100.0)

〈표 11〉 여가공간의 이용거리

장소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χ^2)	연 령 (χ^2)	지 역 (χ^2)
학원	5.27	7.05	54.85***
길거리	4.16	15.31**	10.32
상점 류	5.98	1.16	14.35*
오락실	2.38	11.10*	37.43***
유흥장	2.71	8.33*	28.84***
공원/녹지공간	7.71	10.31*	20.11**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	2.74	4.97	23.87***
커피숍/음식점	3.18	9.97*	44.32***
종교시설	2.41	6.64	12.68*
독서실/도서관	0.50	17.67***	70.39***
감상활동시설	11.51**	6.29	58.39***

* p<.05 ** p<.01 *** p<.001

〈표 12〉 성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거리

빈도(%)

여가공간	성	도보 근거리	도보 원거리	차량 근거리	차량 원거리	계	χ^2
감상활동시설	남자	17(10.8)	22(13.9)	42(26.6)	77(48.7)	158(100.0)	11.51**
	여자	22(11.4)	19(9.8)	83(43.0)	69(35.8)	193(100.0)	

** p<.01

리(56.9%), 학원(55.6%), 오락실(55.2%) 등은 50% 이상의 학생들이 도보 근거리에 있는 곳을 이용하였다. 커피숍/음식점은 차량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이용(34.8%)하거나 도보로 근거리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33.3%)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감상활동시설만은 차량으로 먼 거리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다.

성, 연령, 주거지역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성에 따라 여가공간 이용거리는 감상활동시설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1$) 남학생은 차량이용의 원거리가 가장 많은 반면(48.7%), 여학생은 차량 이용의 근거리(43.0%)가 가장 많았다(<표 12>).

연령에 따라서는 길거리 배회($p < .01$), 오락실($p < .05$), 유흥장($p < .05$), 공원/녹지공간($p < .05$), 커피숍/음식점($p < .05$), 독서실/도서관($p < .001$)이용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13>). 길거리 배회는 중학생이 도보근거리(51.1%)와 도보원거리(36.8%)에 있

는 곳을 이용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도보 근거리(63.3%)가 많으며, 도보원거리(20.0%)는 적게 이용하였다. 오락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도보근거리(55.3%)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은 도보원거리(26.7%)를 이용한 반면,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먼거리인 차량근거리(22.1%)를 이용하였다. 유흥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도보근거리(40.4%, 37.2%)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은 도보원거리(26.6%)를 이용한 반면 고등학생은 차량 근거리(27.4%)를 이용하였다. 공원/녹지공간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도보원거리 이상의 먼거리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커피숍/음식점은 중학생이 도보 근거리(32.8%)와 차량근거리(29.4%)를 이용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차량근거리(40.2%)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독서실/도서관은 중학생이 도보 근거리(42.9%)와 도보원거리(26.1%)를 이용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도보근거리(38.1%)는 적으나 차량근거리(27.9%)는 더 많이 이용하였다.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두 여가공간은 도보근거리에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중

<표 13> 연령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거리

빈도(%)

여가공간	연령	도보 근거리	도보 원거리	차량 근거리	차량 원거리	계	χ^2
길거리	중학생	114(51.1)	82(36.8)	21(9.4)	6(2.7)	223(100.0)	15.31**
	고등학생	136(63.3)	43(20.0)	27(12.6)	9(4.2)	215(100.0)	
오락실	중학생	114(55.3)	55(26.7)	29(14.1)	8(3.9)	206(100.0)	11.10*
	고등학생	115(55.3)	33(15.9)	46(22.1)	14(6.7)	208(100.0)	
유흥장	중학생	38(40.4)	25(26.6)	18(19.2)	13(13.8)	94(100.0)	8.33*
	고등학생	42(37.2)	15(13.3)	31(27.4)	25(22.1)	113(100.0)	
공원/ 녹지공간	중학생	80(47.9)	29(17.4)	30(18.0)	28(16.8)	167(100.0)	10.31*
	고등학생	53(31.4)	33(19.5)	45(26.6)	38(22.5)	169(100.0)	
커피숍/ 음식점	중학생	66(32.8)	55(27.4)	59(29.4)	21(10.5)	201(100.0)	9.97*
	고등학생	67(16.8)	31(15.6)	80(40.2)	21(10.6)	199(100.0)	
독서실/ 도서관	중학생	87(42.9)	53(26.1)	43(21.2)	20(9.9)	203(100.0)	17.67***
	고등학생	75(38.1)	27(13.7)	55(27.9)	40(20.3)	197(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4〉 주거지역에 따른 여가공간 이용거리

빈도(%)

여가공간	주거지역	도보 근거리	도보 원거리	차량 근거리	차량 원거리	계	χ^2
학원	시	79(63.7)	7(5.7)	27(21.8)	11(8.9)	124(100.0)	54.85***
	읍	64(62.1)	18(17.5)	15(14.6)	6(5.8)	103(100.0)	
	면	4(10.5)	4(10.5)	18(47.4)	12(31.6)	38(100.0)	
상점류	시	152(72.7)	15(7.2)	29(13.9)	13(6.2)	209(100.0)	14.35*
	읍	114(71.3)	22(13.8)	19(11.9)	5(3.1)	160(100.0)	
	면	34(54.0)	10(15.9)	15(23.8)	4(6.4)	63(100.0)	
오락실	시	122(61.6)	36(18.2)	32(16.2)	8(4.0)	198(100.0)	37.43***
	읍	90(58.1)	40(25.8)	20(12.9)	5(3.2)	155(100.0)	
	면	16(26.7)	12(20.0)	23(38.3)	9(15.0)	60(100.0)	
유홍장	시	39(44.8)	8(9.2)	21(24.1)	19(21.8)	87(100.0)	28.84***
	읍	36(40.9)	27(30.7)	17(19.3)	8(9.1)	88(100.0)	
	면	5(15.6)	5(15.6)	11(34.4)	11(34.4)	32(100.0)	
공원/ 복지공간	시	72(40.7)	31(17.5)	49(27.7)	25(14.1)	177(100.0)	20.11**
	읍	47(42.3)	25(22.5)	17(15.3)	22(19.8)	111(100.0)	
	면	13(27.7)	6(12.8)	9(19.2)	19(40.4)	47(100.0)	
놀이터/운동 장/스포츠 시설	시	135(72.6)	27(14.5)	16(8.6)	8(4.3)	186(100.0)	23.87***
	읍	95(67.9)	22(15.7)	16(11.4)	7(5.0)	140(100.0)	
	면	20(37.7)	12(22.6)	14(26.4)	7(13.2)	53(100.0)	
커피숍/ 음식점	시	45(23.2)	36(18.6)	89(45.9)	24(12.4)	194(100.0)	44.32***
	읍	75(50.3)	36(24.2)	29(19.5)	9(6.0)	149(100.0)	
	면	13(23.2)	14(25.0)	21(37.5)	8(14.3)	56(100.0)	
종교시설	시	53(37.6)	32(22.7)	27(19.2)	19(20.6)	141(100.0)	12.68*
	읍	61(50.8)	24(20.0)	26(21.7)	9(7.5)	120(100.0)	
	면	15(37.5)	7(17.5)	11(27.5)	7(17.5)	40(100.0)	
독서실/ 도서관	시	59(31.1)	38(20.0)	52(27.4)	41(21.6)	190(100.0)	70.39***
	읍	90(59.2)	35(23.0)	24(15.8)	3(2.0)	152(100.0)	
	면	13(22.8)	7(12.3)	21(36.8)	16(28.1)	57(100.0)	
감상활동 시설	시	14(7.8)	20(11.2)	95(53.1)	50(27.9)	179(100.0)	58.39***
	읍	19(16.0)	16(13.5)	16(13.5)	68(57.1)	119(100.0)	
	면	6(11.5)	4(7.7)	14(26.9)	28(53.9)	52(100.0)	

* p<.05 ** p<.01 *** p<.001

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도보원거리나 차량사용의 근거리의 여가공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학원(p<.001), 상점류(p<.05), 오락실(p<.001), 유흥장(p<.001), 공원/녹지공간(p<.01), 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P<.001), 커피숍/음식점 (p<.001), 종교시설(p<.05), 독서실/도서관(p<.001), 감상활동시설(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4).

학원은 시지역(63.7%)과 읍지역(62.1%)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도보 근거리에 있는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차량이용 근거리(47.4%)가 가장 많았다. 상점류는 시지역(72.7%), 읍지역(71.3%), 면지역(54.0%)에 거주하는 청소년 모두 도보 근거리가 가장 많았다. 오락실은 시지역(61.6%)과 읍지역(58.1%)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도보 근거리가 가장 많았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차량이용 근거리(38.3%)가 가장 많았다. 유흥장은 시지역(44.8%)과 읍지역(41.0%)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도보 근거리가 가장 많았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차량이용 근거리(34.4%)와 차량이용 원거리(34.4%)가 많았다. 공원/녹지공간은 시지역(40.7%)과 읍지역(42.3%)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도보 근거리가 많았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차량이용 원거리(40.4%)가 가장 많았다. 놀이터/운동장/스포츠 시설은 시지역(72.6%), 읍지역(67.9%), 면지역(37.7%) 모두 도보 근거리가 가장 많았다. 커피숍/음식점은 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차량이용 근거리(45.9%), 읍 지역은 도보 근거리(50.3%), 면지역은 차량이용 근거리(37.5%)가 가장 많았다. 종교시설은 시지역(37.6%), 읍지역(50.8%), 면지역(37.5%) 모두 도보 근거리가 가장 많았다. 독서실/도서관은 시지역(31.1%)과 읍 지역(59.2%)은 도보 근거리가 가장 많았고, 면지역(36.8%)은 차량이용 근거리가 가장 많았다. 감상활동시설은 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차량이용 근거리(53.1%)가 가장 많았고, 읍지역(57.1%)과 면지역(53.9%)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차량이용 원거리가 가장 많았다.

즉, 시지역과 읍지역은 감상활동시설을 제외한

여가공간을 도보근거리에 있는 곳을 이용하였으나 면지역은 차량사용 근거리나 차량사용 원거리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거주지역내에 여가공간시설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미래 희망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위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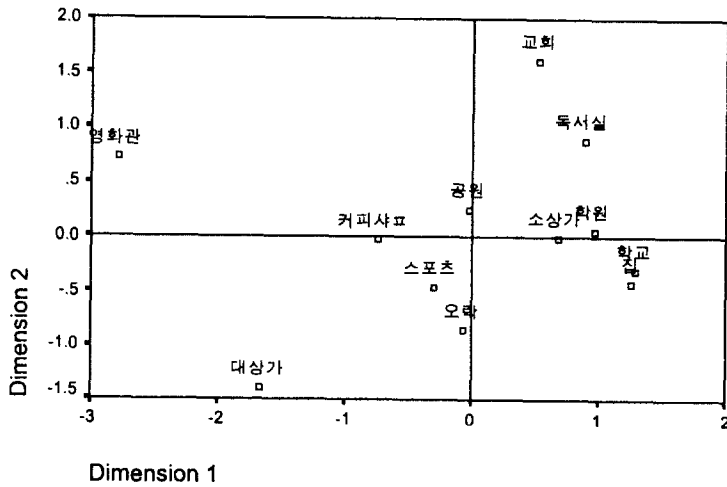
청소년이 미래에 희망하는 여가생활을 위한 여가공간들의 위치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 쌍들을 제시한 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두 공간과의 거리를 조사하였다. 이들 각 공간 간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이내, 걸어서 30분 이내, 차 타고 30분 이내, 차 타고 1시간 이내, 차 타고 1시간 이상까지의 5점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서 조사하였다. 제반 여가공간들간의 거리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행렬표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청소년 전체,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으로 나누어 SPSS의 다차원척도 분석을 하고 유클리안 거리모형을 제시하였다.

1)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위치구조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거리의 평균값에 대한 행렬표의 결과는 <표 15>와 같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거리에 대해 다차원척도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 Kruskal의 stress 값은 .13이며 RSQ(자료분산의 비율)는 .93이었다. 스트레스값이 20%를 넘으면 재현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10%에서 20%정도라면 적절히 재현되었으며, 5% 이내라면 매우 잘 재현된 것이다. 청소년은 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가가 가장 가까이 위치하기를 희망했으며 그 다음으로 오락/게임실, 학원, 학교, 공원/녹지공간, 스포츠시설, 독서실/도서관 등의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회/성당, 커피숍/음식점, 대규모 상가, 소극장/영화관 등은 다른 공간들에 비하여 집에서 멀리 차량권에 위치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제2차 생활공간인 학교를 중심으로는 소규모 상가, 독서실, 학원, 공원/녹지공간, 오락/게임실, 스포츠시설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용빈도가

〈표 15〉 여가공간들간 거리의 평균값 행렬표 : 전체

	집	학교	학원	대규모상가	소규모상가	오락/게임실	공원/녹지공간	스포츠시설	커피숍/음식점	교회/성당	독서실/도서관	소극장/영화관
집												
학교	1.77											
학원	1.75	1.78										
대규모상가	2.30	2.30	2.28									
소규모상가	1.19	1.56	1.48	2.19								
오락/게임실	1.57	1.90	1.70	1.84	1.57							
공원/녹지공간	1.77	1.81	1.80	2.05	1.83	1.88						
스포츠시설	1.95	1.92	1.87	1.95	1.82	1.80	1.69					
커피숍/음식점	2.08	2.05	1.88	1.82	1.86	1.78	1.82	1.75				
교회/성당	2.03	2.16	2.00	2.41	1.92	2.18	1.86	2.05	2.04			
독서실/도서관	1.97	1.65	1.71	2.39	1.95	2.14	1.76	1.99	1.82	1.98		
소극장/영화관	2.80	2.59	2.50	2.18	2.34	2.22	2.19	2.19	2.04	2.40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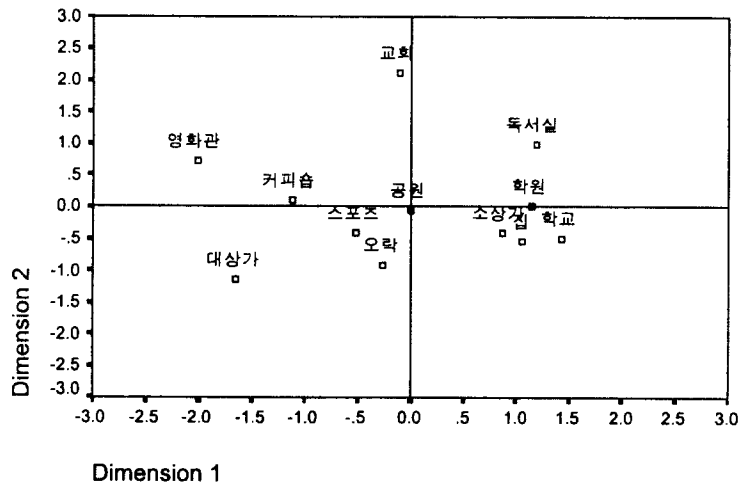


〈그림 1〉 여가공간들간 이상적 거리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 전체

많고 도보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상가, 오락/게임실은 집 가까이 위치하기를 희망했으며 이용빈도가 낮고 차량 근거리 이상에 위치해 있는 커피숍/음식점, 소극장/영화관 등은 집에서 멀리 차량권에 위치하기를 원했다. 또한 학습생활공간인 독서실, 학원 등은 학교 가까이 위치하기를 하였다.

<표 16> 여가공간들간 거리의 평균값 행렬표 : 시지역

	집	학교	학원	대규모 상가	소규모 상가	오락/ 게임실	공원/ 녹지공간	스포츠 시설	커피숍/ 음식점	교회/ 성당	독서실/ 도서관	소극장/ 영화관
집												
학교	1.69											
학원	1.54	1.78										
대규모상가	2.35	2.46	2.47									
소규모상가	1.05	1.52	1.39	2.35								
오락/게임실	1.39	1.95	1.82	1.71	1.66							
공원/녹지공간	1.65	1.74	1.72	1.97	1.82	1.82						
스포츠시설	1.89	2.08	2.08	1.89	1.94	1.85	1.79					
커피숍/음식점	2.23	2.35	2.15	1.68	2.00	1.82	1.98	1.90				
교회/성당	2.16	2.47	2.32	2.61	2.28	2.55	2.10	2.22	2.21			
독서실/도서관	2.05	1.69	1.80	2.66	2.15	2.27	1.95	2.15	2.03	2.31		
소극장/영화관	2.65	2.57	2.49	2.02	2.43	2.00	2.03	2.13	1.82	2.31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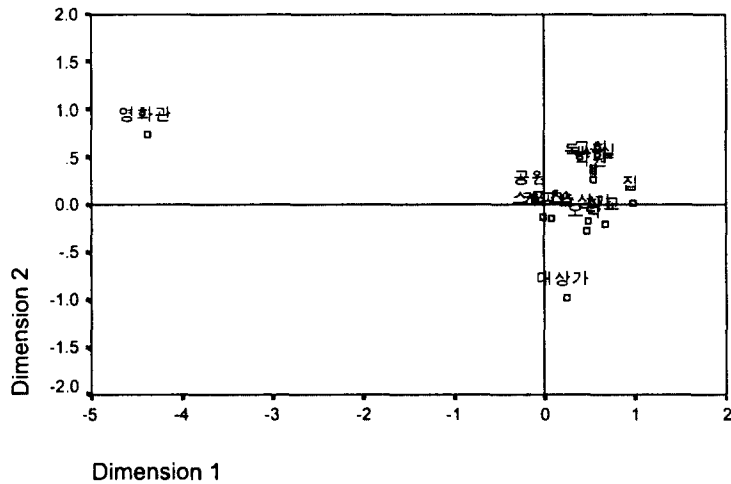


<그림 2> 여가공간들 간 이상적 거리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시지역

2) 주거지역에 따라 희망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위치구조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공간들간 의 거리의 평균값에 대한 행렬표의 결과는 <표 16> 과 같으며, 집을 중심으로 각각의 여가관련공간의 위치는 <그림 2>와 같다. Kruskal의 stress 값은 .21이며 RSQ(자료 분산의 비율)는 .74였다. 청소년

〈표 17〉 여가공간들간 거리의 평균값 행렬표 : 읍지역

	집	학교	학원	대규모 상가	소규모 상가	오락/ 게임실	공원/ 녹지 공간	스포츠 시설	커피숍/ 음식점	교회/ 성당	독서실/ 도서관	소극장/ 영화관
집												
학교	1.74											
학원	1.85	1.78										
대규모상가	2.22	2.07	2.12									
소규모상가	1.33	1.54	1.61	1.87								
오락/게임실	1.72	1.84	1.56	2.00	1.58							
공원/녹지공간	1.93	1.88	1.97	2.02	1.89	2.07						
스포츠시설	1.91	1.78	1.78	1.91	1.73	1.87	1.57					
커피숍/음식점	1.94	1.67	1.67	1.87	1.79	1.77	1.68	1.62				
교회/성당	1.91	1.87	1.76	2.13	1.58	1.76	1.64	1.91	1.89			
독서실/도서관	1.81	1.45	1.65	2.11	1.71	1.93	1.64	1.91	1.65	1.71		
소극장/영화관	3.18	2.65	2.53	2.56	2.50	2.50	2.35	2.37	2.38	2.57	2.64	



〈그림 3〉 여가공간들 간의 이상적 거리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 읍지역

년은 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가가 가장 가까이 위치하기를 희망했으며 그 다음으로 오락/게임실, 학원, 공원/녹지공간, 학교, 스포츠시설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실/도서관, 교회/성당, 커피숍/음식점, 대규모 상가, 소극장/영화관 등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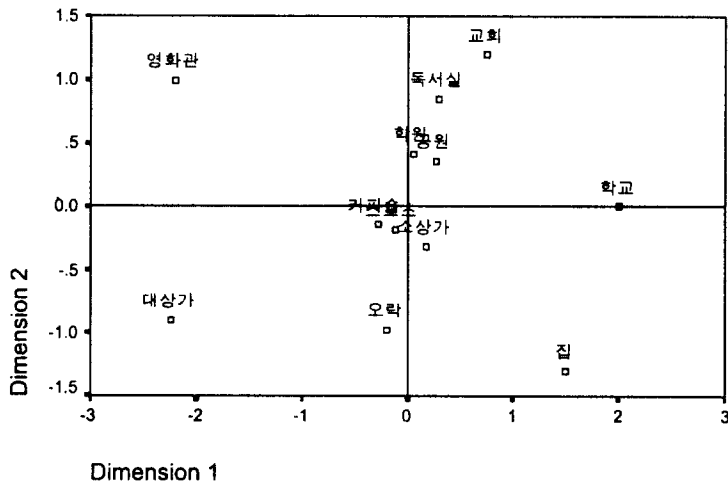
공간들에 비하여 집에서 멀리 차량권에 위치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제2차 생활공간이 학교를 중심으로는 소규모 상가, 독서실/도서관, 학원, 오락/게임실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공

간들간의 거리의 평균값에 대한 행렬표의 결과는 <표 17>과 같으며, 집을 중심으로 각각의 여가관련공간의 위치는 <그림 3>과 같다. Kruskal의 stress 값은 .08이며 RSQ(자료 분산의 비율)은 .99였다. 청소년은 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가가 가장 가까이 위치하기를 희망했으며 그 다음으로

<표 18> 여가공간들간 거리의 평균값 행렬표 : 면지역

	집	학교	학원	대규모 상가	소규모 상가	오락/게임실	공원/녹지공간	스포츠 시설	커피숍/음식점	교회/성당	독서실/도서관	소극장/영화관
집												
학교	2.09											
학원	2.20	1.65										
대규모상가	2.41	2.45	2.10									
소규모상가	1.27	1.68	1.45	2.32								
오락/게임실	1.76	1.86	1.68	1.78	1.36							
공원/녹지공간	1.77	1.86	1.72	2.32	1.72	1.68						
스포츠시설	2.14	1.64	1.41	2.10	1.63	1.50	1.52					
커피숍/음식점	2.00	1.86	1.50	2.00	1.59	1.63	1.55	1.55				
교회/성당	1.95	1.95	1.68	2.41	1.68	1.95	1.59	1.81	1.81			
독서실/도서관	2.00	1.81	1.45	2.18	1.81	2.14	1.33	1.68	1.55	1.50		
소극장/영화관	2.50	2.55	2.36	2.00	1.77	2.27	2.32	1.95	1.90	2.23	2.23	



<그림 4> 여가공간들 간의 이상적 거리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 면지역

오락/게임실, 학교, 독서실/도서관, 학원, 교회/성당, 스포츠 시설, 공원/녹지공간, 커피숍/음식점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상가, 소극장/영화관 등은 다른 공간들에 비하여 집에서 멀리 차량권에 위치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제2차 생활공간이 학교를 중심으로는 독서실/도서관, 소규모상가, 커피숍/음식점, 학원, 스포츠시설, 오락/게임실, 교회/성당, 공원/녹지 공간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다른 지역과 달리 거의 모든 여가공간들이 도보권에 있기를 희망하였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가공간들 간의 거리의 평균값에 대한 행렬표의 결과는 <표 18>과 같으며, 집을 중심으로 각각의 여가관련공간의 위치는 <그림 4>와 같다. Kruskal의 stress 값은 .18이며 RSQ(자료 분산의 비율)는 .87이었다. 청소년은 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상가가 가장 가까이 위치하기를 희망했으며 그 다음으로 오락/게임실, 공원/녹지공간, 교회/성당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커피숍/음식점, 독서실/도서관, 학교, 스포츠시설, 학원, 대규모 상가, 소극장/영화관 등은 다른 공간들에 비하여 집에서 멀리 차량권에 위치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제2차 생활공간인 학교를 중심으로는 스포츠시설, 학원, 소규모상가, 독서실/도서관, 오락/게임실, 공원/녹지공간, 커피숍/음식점, 교회/성당 순으로 가까이 도보권으로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거의 모든 여가공간들이 차량권에 있기를 희망하였고, 모든 여가공간들이 집에서 도보권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도보권에 있기를 원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윤영선(1997)의 연구에서 대도시의 청소년은 주로 학원, 학교, 도서관, 독서실이 도보권으로 가까이 위치하기를 원하는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사는 청소년인 경우 오락/게임실, 공원/녹지공간과 같은 오락위주의 여가공간이 가까이 있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서울 청소년과 중소도시, 읍·면지역 청소년의 다른 여가활동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여가환경 이용과 미래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여가환경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1) 청소년의 일주일 단위의 여가공간의 이용은 길거리 돌아다니기>학원>상점>오락실 이용이 많으며, 한달 단위로 볼 때는 커피숍/음식점>독서실/도서관>놀이터/운동장/스포츠시설 등을 많이 이용하여서 불충분한 여가공간이 조성된 중소도시의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기보다는 시간 소모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여가공간의 이용은 성, 연령, 부의 학력, 수입,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2) 청소년들은 현재 여가공간 이용빈도와 위치에 따라 희망 여가공간 위치가 달랐으며 주거지역에 따라 원하는 여가공간의 위치가 차이가 있었다.
- 3) 미래 희망하는 여가공간의 위치는 소규모상가, 오락/게임실, 학원, 학교, 공원/녹지공간, 스포츠 시설, 독서실/도서관 등의 순으로 주택 가까이 도보권에 배치되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대도시 청소년이 스포츠시설을 주택과 가까이 배치되기를 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충분한 여가공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역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 청소년들이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하기를 더 원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소도시규모 이하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여가공간 이용은 비생산적이며, 여가환경도 빈약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지역에서 면지역으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여가공간에 대한 이용거리가 멀게 나타나, 근린환경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여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여가시간, 여가공간, 여가공간위치

참 고 문 헌

- 김명조(1990).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생활의 실천 방안. 부산대학교 사대논문집, 제21집.
- 여충규(1993). 청소년 여가활동 실태와 욕구성향에 관한 조사연구-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선(1997). 청소년집단에 따른 여가행태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희(1990). 청소년 여가선용 실태와 가치관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윤경선·윤영선·윤혜경(1995). 시간적 틀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공간행태. 연세 논총, 31, 105-139.
- 이연숙·윤영선·윤혜경·김동배·윤경선(1996). 한국청소년의 여가행태 및 여가공간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3(1), 21-45.
- 조성희(1990). MDS분석방법을 이용한 거실의 가구사용 행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 1-11.
- 한국청소년 개발원(1993). 청소년 문화론. 서울: 서원.
- 한국청소년 연구원(199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청소년 여가생활 및 의식조사. 서울: 한국청소년 연구원.
- 홍세정(1992). 청소년의 여가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William H. Ittelson, Harold M. Proshansky, Leanne G. Rivlin, Gary H. Winkel(1995). 환경심리학. 윤홍섭 번역, 서울: 성원사.
- Caldwell, L.L., Smith, E.A., & Weissinger, E.(1992). The Relationship of Leisure Activities and Perceived Health of College Student. Society and Leisure, 15(2), 545-556.
- Heimstra M. L.H.(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Brooks/Cole Publishing Co.
- Murphy, J.F.(1975). Recreation and Leisure Service. Iowa: William C. Brown.